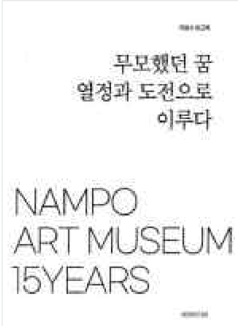
개관 15년을 맞은 고흥 남포미술관은 지역의 문화명소가 됐다.

"남포미술관 15년, 발자취 담았죠"

곽형수 관장, 회고록·백서 발간
"고군분투 사립미술관 정보공유"
소록도 벽화프로젝트 기억 남아

곽형수 관장



지금 생각하면 모두 꿈만 같은 일이다. 고향의 낡은 폐교를 고쳐 미술관을 만들고, 그 미술관을 15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시골 남도 끝자락 고흥에서 그림을 싣고 강원도 화천까지 찾아갔던 일이나,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 소록도 주민들과의 첫만남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됐다.

지난 2005년 고흥군 영남면에 문을 연 남포미술관은 곽형수 관장이 2대째 운영해오던 영남중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전남 등록 제 1호 미술관'이다. 3000여평의 정원은 '전남 민간정원 10호'로 등록됐다.

곽형수 관장이 회고록 '무모했던 꿈 열정과 도전으로 이루다'와 백서 '척박한 땅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다'를 함께 펴냈다. 특히 시골의 사립미술관에서 '백서'를 만드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눈길을 끈다. 남포미술관을 찾았던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도 '백서'를 받고는 "아카이브 작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시골 미술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회고록, 특히 백서를 내는 것에 대해 괜히 자랑하고 그러는 것 같아 좀 망설이기도 했어요. 지역적 접근성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골 사립미술관이 어려움을 딛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꼼꼼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처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이들과 소소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미술관들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2년전부터 준비한 백서 작업은 힘들었다. 320페이지 분량의 백서에는 미술관 소개, 전시, 교육, 미술관 음악회, 찾아가는 미술관 등 다양한 자료가 실렸다. 여타 미술관처럼 인턴 직원 등이 없다보니 미술관에서 열렸던 그 많은 행사들의 사진과 자료들을 챙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소록도와의 인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소록도 현지에서 열린 첫 기획전 '아기사슴, 희망을 나누다'를 시작으로 소록도 중증환자들이 직접 참여한 '소록도, 행복한 웃음으로 피어나다'전은 큰 감동을 전했다. 그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한 소록도 옹벽 벽화 프로젝트 '아름다운 동행-소록도 사람들'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2달여 동안 3000만원을 모아야 프로젝트가 성공하는데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아 애가 탔어요. 미술관 운영하며 가장 힘들었던 때로 기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사정하며 모금에 참여해달라고 했죠. '나 죽을 때 부조하지 말고 지금 도와달라'면서요. 결국 문화예술위원회 펀딩 최고액은 3300여만원을 기록했죠. 많은 이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포미술관에는 전시실과 함께 작은 공연장을 갖추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골사람들을 미술관으로 오게 하는 방편이었다. "나, 그림 볼 줄 몰라"하는 주민들에게 "굿보러 오세요"하며 손을 내밀었다.

"처음 이곳에 미술관을 연다고 했을 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누가 여기까지 그림을 보러오겠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냐 하면서요. 동네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공연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작전이 맞아 떨어졌죠. 공연 보러 왔던 주민들이 '지난 그림 보다 이번 그림이 더 좋네'하며 한마디씩 하게 되더군요. 항상 좋은 공연을 유치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술관 방문이 자연스러워지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늘어났구요."

곽 관장은 사립미술관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관리운영비 등을 개인이 부담하며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오는 재정적 부담, 사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인력과 예산 지원을 꺼리는 상황 등이다.

곽 관장은 "초기에 미술관을 찾았다 다시 방문한 이들은 '미술관이 천지개벽했다', '관장님이 많이 늙으셨다'는 말을 하곤 한다"며 내 생애 마지막까지 이어질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건희 기증관' 서울에 짓는다

문체부, 용산·송현동 중 선정…2027~2028년 개관 예정
21일부터 중앙박물관·현대미술관 전시, 매년 3회 지역순회

'금동보살삼존입상'(국보 134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하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을 선정하고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살리기 위해 이건희 기증품 활용의 4대 기본원칙을 7일 발표했다.

황희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 발표에서 "최종 부지 선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기증자의 수집 가치와 정신, 국민의 문화 향유를 높이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중 근대 미술품 등을 활용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요구했고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구분 짓지 않고 통합된 '뮤지엄'을 서울에 두기로 했다.

중앙박물관 민병찬 관장은 건립 일정과 관련해 "기증품에 대한 조사와 설계, 건축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완공은 2027년이나 2028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등 4가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이건희 컬렉션은 오는 21일부터 공개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과 국외 전시도 추진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21일 동시에 개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층 서화실에서 열리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70여 점을 선보인다. 국보로 지정된 '정선 필 인왕제색도'와 '금동보살삼존입상', 보물로 지정된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도 등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증품 1488점 가운데 20세기 초·중반 한국미술 대표작 60여 점을 뽑아 서울관 1층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 명작' 전시를 한다. 김환기·박수근·이중섭·이응노·천경자 등 작가 35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내년 4월에는 양 기관이 하나의 공간에서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3회 이상 지역별 박물관과 미술관 순회전 개최를 추진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역 박물관과 권역별 공립박물관·미술관, 별도로 이건희 컬렉션을 받은 지방 박물관이 협력해 지역 주민들이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왕따' 수영이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향숙 작가

'날아라 돌고래!' 발간

왕따와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는 뉴스가 있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동화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동시와 동화로 어린이를 만나온 서향숙 작가가 장편동화 '날아라 돌고래!'(고래책방)을 펴냈다.

특수아인 수영이는 날마다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한다. "똥개, 바보, 멍청이"는 수영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수영이는 학교에 가기 싫고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싫다. 다행히 자신을 아껴주는 착한 친구 현서가 있다. 또한 수영이는 수영선수였던 아빠를 닮아 수영을 잘한다. 엄마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수영이는 수영만큼은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돌고래처럼 수영을 잘하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수영이의 수영 실력이 늘수록 친구들의 시기도 늘어난다. 수영이는 아이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려 잠시 수영을 포기할까도 생각한다. 그러나 아빠의 약속과 친구 현서의 응원으로 꿋꿋이 이겨나간다.

작품은 수영이라는 아이를 통해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 받는지를 보여준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는 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아이들의 눈을 통해 말해준다.

작가는 '수영이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세상의 친구들아! 지금도 학교에서는 나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은 가장 비겁한 일이지. 마음속으로 항상 울고 있는 힘이 약한 친구를 생각해 봐. 다시는 나 같은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며 부탁해."

한편 여수 출신인 서향숙 작가는 명지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와 새벗문학상 동화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KBS창작동요 가사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동시집 '연못에 놀러온 빗방울', 동화집 '날개달린 사자', 동요집 '시골 빈 집에'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공연 장면.

창작국악단 도드리 '무등의 아침' 공연

10일 전일빌딩245

(사)창작국악단 도드리(이사장 김재섭·이하 도드리)가 창단 24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연다. 도드리는 오는 10일 오후 5시 전일빌딩 9층 다목적 강당에서 '무등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1998년 창단한 도드리는 순수 민간 창작 국악단으로 전통음악에 서양음악 요소를 결합시킨 창작곡과 퓨전국악 등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으며, 창작곡을 수록한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타악 퍼포먼스 '무령지곡의 울림'으로 막을 올리며, 이어 가야금 병창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국악관현악 '무등의 아침', 국악가요 '못난이 아리랑, 아리랑 광주', 장새납 협주곡 '열풍', 국악과 트로트의 만남 '천년바위, 멋진인생', 장구 협주곡 '소나기' 등을 선보인다.

김산옥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연에는 대금 박장원, 피리 이영희, 플룻 문성희, 건반 전진효, 장고 김한솔, 모듬북 고정한, 드럼 하건 등이 출연한다. 협연자로는 장새납 구경훈, 장고 김수연, 노래 박지연 등이 함께한다. 무료관람. 문의 062-266-588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062)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752-9940